




**제 29회 KOGA 정기총회 열려**

2019년은 비상하는 코가를 위해 전통을 이어가고 회원사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코가가 될 것이라 결의했다.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코리아봉제**  
Vol. 14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 코가 2018년 제 29회 정기총회 열렸다.



지난 12월 21일 재이니 봉제 협회(회장:박재환)에서 2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50여 상임사와 회장단, 회원사가 참여해 코가의 현안 및 회칙 개정 등 봉제협회 내부 사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 코가는 매년 골프대회를 실시해 전 봉제협회 회원사의 화합과 단합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며 박재환 회장은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코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치하했다. 2018년 다시 코가라는 슬로건과 함께 코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으며 이번 29회 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2019년은 비상하는 코가를 위해 전통을 이어가고 회원사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코가가 될 것이라 결의했다. 한편 강원구 부회장의 결산보고와 하나은행 이화수 행장의 환율관리, 손인식 선생의 인문학 강의에 관한 특강이 있었으며 회칙변경, 2018년 예산결산, 2019년 예산 심의가 있었다.

## 인니 섬유업체, 작년 목표 수출 135억 달러 달성 예상... “올해도 성장할 것” 낙관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는 작년 목표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끈판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데 수드라얏 협회장은 “아직 실제 데이터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수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작년 섬유산업 수출을 전년의 125억 9천만 달러보다 증가한 135억 달러로 제한했다. 유럽국가와 미국, 한국, 일본 수출을 통해 13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데 협회장은 “이 결

과에 따라 올해 섬유산업 전망도 낙관적이다”라며 “올해는 한 자릿수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에너지 등 상류산업에 대한 높은 가스가격으로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데 협회장은 “가스 외에도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원료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보다 20% 높다. 이에 관련 제품 가격도 덩달아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 16차 경제정책 패키지, 이달 중 세부 규정 공포

7일자 현지 인베스터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다르민 나수스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해 이달 안으로 자세한 규정을 공포할 생각을 나타냈다. 다르민 장관에 따르면, 조세 감면혜택(법인세 일시 면세)에 대한 재무장관령은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는 외자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과 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의 국내 계좌 예치 의무에 관한 법령에 대해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센터장은 “네거티브리스트 관



▲ 다르민 나수스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한 규정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업종 제한은 투자 의욕의 감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거티브리스트 완화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단)와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반대에 따라 이행이 연기된 바 있다.

## BPJS, 건강보험료 체납자 처벌 강화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을 새롭게 제정하고 신생아의 신규 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체납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 82호’를 지난 9월 18일자로 시행했으며,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12월 18일 일부 조항이 발효됐다. 새로운 규정은 JKN 가입자에 대해 아기가 탄생했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생아의 가입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는 가입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기존에는 체납 보험료를 최대 12개월분 지불하면 자격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4개월분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상급 의료 시설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최대 3,000만 루피아)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JKN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 측은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등 과제에 대한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f1-logix.com

#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 2019 인도네시아 주요 정책 방향 ... 복지와 소비



▲ 지난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의회(DPR, 하원)는 2019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은 대선과 총선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로 정치경제환경과 정책적 변화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경제 정책의 전체적인 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 부처는 최근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을 기준으로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BAPPENAS: 바빠나스)은 각 산업별 예상되는 성장률을 제시했으며, 특

히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 경제와 직결된 '정보 통신 산업'을 꼽고 교통 및 물류,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의회(DPR, 하원)는 2019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했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령 2018년 제 129호를 통해 '2019 국가 예산안 세부 사항'이 공포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정부에 예산안 이행 분야 리스트도 제출됐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19년 가속화되는 글로

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 할당 및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나, 복지 분야와 관련된 지출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정치적 변동 가능성 및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리 장관은 5.3%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 예정된 대선과 총선이 인도네시아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 환경 개선 정책과 인프라 정책이 투자 증대에 도움이 주리라 전망했다. 실제로 2019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APBN 2019)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3%로 설정됐다. 2019년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만5,000루피아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환율 수준은 2018년의 환율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주요 정책 이슈였던 인프라의 개발 속도는 2019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9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수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속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019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 지출 계획은 2018년 410조4,000억 루피아(한화 약 31조7,649억 원)였지만 2019년에는 415조 루피아(약 32조1,210억 원)로 전년 대비 1.12%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인프라 분야와 달리 교육과 보건으로 분야의 정부 할당 예산 규모는 2019년에 대폭 확대됐다. 교육 분야의 2019년 예산 규모는 492조5,000억 루피아(약 38조1,19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으며, 보건으로 분야의 2019년 예산 규모는 123조1,000억 루피아(약 9조5,279억 원)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경제성장 탄력성 유지 △안정적인 거시경제상황 조성 △지속 가능 성장 독려를 통해 △경제 성장 △빈곤 퇴치 △지니 계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치솟는 최저 임금인 인도네시아에서도 고민거리다. 2018년에도 전년 대비 8%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보이며 고용주의 반발을 샀지만,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근거해 2019년 주단위와 시군단위의 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을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주최저임금은 2018년 인플레이션을 2.88%와 경제성장률 5.15%를 더한 8.03%가 됐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단점은 변동이 잦다는 점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경제, 투자, 노무 정책에 대한 부분은 한국 투자 진출기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니프 노동장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연내 정비할 것

하니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올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12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1일 8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는 노동법 '2003년 제13호'를 개정하여 육아와 병행 가능한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국내 여성의 취업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52%로 남성의 83%와 비교해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여성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어렵다"며 "IT의 발달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



고 있어 노동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아디 회장은 지난해 말 노동법 2003년 제13호에 대해 "시대 착오적"이라며 개정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올해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나 인턴십, 직업 훈련 제도 등 인재 육성의 강화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 산업부, 화학·제약·섬유업 올해 투자 목표 130조 루피아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4일, 화학·제약·섬유 산업의 올해 투자 목표액을 130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석유 화학 분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투자 안전이 있어 올해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끈판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화학·섬유·제지산업(IKTA)국의 시깃 국장은 "한국의 롯데그룹의 롯데 케미칼과 국내 최대 석유 화학기업 찬드라 아스리 페트로케미칼(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이하 CAP)이 총 89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롯데 케미칼은 35억 달러를 투자해

반편 짜레곤 석유 화학 공장, CAP은 54억 달러를 투자해 나프타 분해 시설을 건설한다"라고 언급했다. 시깃 국장은 롯데 케미칼 공장이 가동하면, 원료 수입을 5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지역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 업계는 중국에서 약 10조 루피아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FAST, ACCURATE SERVICE UP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 kang1103@gmail.com

## 인니,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 3차 개정의정서 발효

### FTA 강국, KOREA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 3차 개정의정서가 2018년 12월 18일부터 발효됐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의정서(첨부파일) 또는 www.fta.go.kr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 사전심사(Advance Ruling) 의무  
수입자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수입되기 전 당국에 신청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상품 원산지의 사전심사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신청자의 사건이 정부기관 등에 불복 계류 중이거나, 불복 심판 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전심사 발급 거부 가능하다.
2. RVC(부가가치기준) 산정 방법 변경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

가치기준(RVC) 계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 dow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국가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3. 협정 부록에 관세양허 품목 구체화

각 회원국은 모든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의 관세품목을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통합 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종전에는 민감품목군 품목명만 명시하여 협정에서 관세율 확인이 곤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HS 품목에 대해 품목군 및 관세 철폐(인하) 일정을 연도별로 명시하고 있다.

4. 원산지증명서 서식 구체화  
원산지증명서는 ① 인쇄된 형태(발급 당국이 직접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것)로, ② A4 크기 용지에, ③ 첨부된 양식(AK서식)에 따라 ④ 영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5. 상호대응세율 합의  
상호대응세율 운영은 둘 이상의 회원국간 권리 포기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는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간의 상호대응세율은 2014.1.1.을 기준으로 증가하지 아니한다.

6. 투명성,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관세 행정절차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 사안들은 제외된다.

## 인니 재무부, 수출입 전자 시스템 1월부터 운영



▲ हे루 관세국장(가운데)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수출입 절차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에서 상호 이용하는 시스템 'PDE 인터넷(PDE Internet)'의 운영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세관감독사무소(Kantor Pengawasan dan Pelayanan Bea dan Cukai, KPPBC)에서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세국의 हे루 국장에 따르면, PDE 인터넷은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수입신고서(PIB)와 수출신고서(PEB)의 절차는 70개소에서, 수출입화물 목록에 대한 절차는 83개소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세국은 일괄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세관 직원과 수출입업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해 교육 및 주지 활동 등을 실시해 왔다.

헤루 국장은 "앞으로 수출입 업체는 절차 지연에 따른 화물 체류를 막을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재인니 한국 봉제협회, 무역협회 권도겸 센터장에 감사패 증정



지난 3일 코가(회장:박재환)는 자카르타 무역협회 권도겸 센터장의 한국 귀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센터장은 2016년 1월 ~ 2019년 1월까지 한국(중소)기업 인니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활동, 자카르타 소비재 전시회 론칭(코엑스와 공동주최), 양국 기업간 교류증진활동, 한류 확산분위기를 활용한 한국산 제품 확산등 많은 일을 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4월 코가와는 함께 세미나도 개최하기도 했었다.

권센터장은 귀임후 무역협회 본부 무역정책 실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인도네시아 공장 추가 설립 추진 자회사 주식 102억원 취득 결정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체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인도네시아에 추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자사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10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자회사(PT. JS BOYOLALI)의 주식 90만주를 102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으며, 취득 후 지분율은 100%다.

회사 측은 취득 목적을 "대미 수출 관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국가인 인도네

시아 지역 중 최저임금이 자카르타 대비 50% 낮은 지역에 추가 공장을 설립해 원가 절감과 당사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물량 해소를 위한"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mailto: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mailto: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http://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김재훈의 세무상식

## 국세청장령 25호 (PER -25/PJ/2018) 2019년 1월 1일부터변경된 국세청 서식 Form DGT



김재훈 대표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FORM DGT)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WITHHOLDING TAX**

**Guidance :**  
1.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 person (which includes a body of a person, corporate or non corporate) who is a resident of a country which has been concluded Double Taxation Convention (DTC) with Indonesia  
2. For person who is:  
- a banking institution, or  
- a pension fund, or  
Complete only DGT Page 1  
3. For individual, completes PART I and PART II of DGT Page 1, and PART IV and PART VII of DGT Page 2  
4. For non individual other than mentioned in Number 2, completes PART I and PART II of DGT Page 1, and PART V, PART VI, and PART VII of DGT Page 2

All particulars in the form are to be properly furnished, and the form shall be signed as completed. This form must be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in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 tax resident before submitted to Indonesian withholding agent/custodian.

**Part I INCOME RECIPIENT**

Tax ID Number : \_\_\_\_\_ (1)  
Name : \_\_\_\_\_ (2)  
Full address : \_\_\_\_\_ (3)  
Country : \_\_\_\_\_ (3)  
Contact Number : \_\_\_\_\_ (5) email : \_\_\_\_\_ (6)

**Part II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TAX OFFIC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ax relief,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taxpayer mentioned in Part I is a resident in \_\_\_\_\_ (7) for the period \_\_\_\_\_ (8) to \_\_\_\_\_ (9) within the meaning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Double Taxation Convention concluded between Indonesia and \_\_\_\_\_ (12)

\_\_\_\_\_  
(13) \_\_\_\_\_ (14) \_\_\_\_\_ / \_\_\_\_ / \_\_\_\_ (15)  
Name and Signature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Capacity/designation of signatory Place, date (mm/dd/yy)

Office address : \_\_\_\_\_ (16)

**Part III DECLARATION BY THE INCOME RECIPIENT (BANKING INSTITUTION AND PENSION FUND)**

I declared that:  
1 This company is not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2 This company is a resident of \_\_\_\_\_ (17), for income tax purposes within the meaning of DTC of both countries  
3 the purposes of the transaction is not to obtain the benefit under the conven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at is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DTC,  
4 in relation with the earned income, this company is not acting as an agent, nominee or conduit;  
5 the beneficial owner is not an Indonesia resident taxpayer and/or not a resident taxpayer of the country other than mentioned in Part I; and  
6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stated on this form and to the best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_\_\_\_\_  
(18) \_\_\_\_\_ / \_\_\_\_ / \_\_\_\_ (19) \_\_\_\_\_ (20)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Place, date (mm/dd/yy) Capacity in which acting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is website: <http://www.pajak.go.id>

DGT Page 1

2017년 11월에 최근변경된 국세청 서식 Form DGT(국세청장령 10호/PJ/2017 PER-10/PJ/2017)를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2019년 1월부터는변경된 국세청 서식이 적용된다.

최근국세청장령 25호가 발효되어 금년 1월부터는 변경된 Form DGT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외간 거래 즉 인도네시아 납세자와 외국납세자간에 거래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 (PPh26)에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PPh26을 납부하고 또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고 납세자가 이쪽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에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조세협약 즉 이중과세 방지 및 회피협정을 맺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를 따르지 않고 조세협약을 따를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반드시 Form DGT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인니 세법 규정을 따른다면 굳이 Form DGT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인니 소득세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인니 세금부담이 있기에 대부분 Form DGT를 적용하고 있다.

필자가 인니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중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을 인니어로는 P3B(Peretujuan Penghindaran Pajak Berganda)라고 하고 상대국 납세자 즉 외국납세자는 WPLN (Wajib Pajak luar negeri), 거주증명서는 SKD (Surat Keterangan Domisili) 로 표현한다. 그런데 SKD 보다는 영어식 표현인 COR (certificate of Residence) 이나 COD (certificate of Domicile) 를 실무에서는 더 자주 사용된다.

최근 변경된 국세청장령 25호는 종전 국세청장령 10호 (PER-10/PJ/2017)과 비교하면비금융기관이 사용했던 서식 Form DGT 1과 금융기관이 사용했던 Form DGT 2 가 하나의 서식 DGT Form으로 통합되었고, 소득 유형과 관련 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어졌고, 유효기간내(최장 12개월까지 가능)에서는 Form DGT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었다.

※ 국세청 서식(DGT Form) 작성 관련

1. 은행과 연금기금은 Part I, II / 개인은 Part I, IV, VI / 은행과 연금기금 외의 비개인은 Part I, V, VI 해당된다

2. Part II 는 납세자가 해당 거주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작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단, 해당 거주국의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로 대체 가능하다)

3. 서식의 각 공란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끝)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차장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ira, Kocham)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 포스코그룹,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50만달러 기부

포스코그룹은 3일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만 달러(약 5억6천만원)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 22일 순다해협 해저 산사태로 쓰나미가 발생해 426명이 숨지

고 7천202명이 다쳤으며 4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에 따라 포스코 30만 달러,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 10만 달러, 포스코대우 및 포스코건설 각각 5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의 성

금을 마련해 인도네시아 적십자에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자바섬 반뜰주(州) 팡데글랑 및 안야르 지역은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에서 40~120km 떨어져 있다.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

소는 긴급구호팀을 가동해 구호물품 전달 및 피해복구 자원봉사 등 현지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8월과 10월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3만 달러와 50만 달러의 성금을 기부했으며, 9월에는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가 위치한 찰레



▲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 긴급 구호 활동 펼쳐

콘시 저개발지역에 10채의 주택을 건립해 기부한 바 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Quality | Fast Delivery

**Products**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i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http://www.dongjung.net)

##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연결 트란스자바 고속도로 개통



▲ 조코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20일 버스를 타고 트란스자바 고속도로를 달렸다. [사진: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자바 섬 북부해안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와 제2 도시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연장 760km의 트란스자바 고속도로(Trans Jawa)가 착공 40년만에 연결됐다고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란스자바 고속도로는 2021년에 자바섬 북부해안 서쪽 끝에 있는 머락과 동쪽 끝에 있는 빠수루안까지 연결되면 총 길이가 993km가 된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20일 아침 버스를 타고 수라바야를 출발해 모조꺼르포, 꺼르포소노, 응아위, 스라겐, 솔로, 살라띠가, 스마랑, 끈달, 바팡까지 349km 구간을 최대 시속 90km로 달리면서 중간에 내려 구간별 개통식에 참석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고속도로 투어에는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부장관과 브라모노 아눔 국무장관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동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에서 “인도네시아 교통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오늘부터 자카르타와 수라바야가 고속도로로 연결됐다.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올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에 자바섬을 여행하는 시민들은 기존 국도와 새 고속도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행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8년에 트란스자바 고속도로에 착수했지만 예산부족, 토지 수용, 관료주의 병폐 및 건설 회사 변경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1978년부터 2004년까지 242km, 이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75km를 건설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가 들어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616km를 건설해 마침내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게 됐다. 나머지 동부자바주 반유앙이와 빠수루안을 연결하는 217km는 2021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부장관은 새 고속도로 7개 구

간을 성탄절과 양력설 연휴에 완전 가동하며, 내년 1월까지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프라 개발은 조코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고속도로, 항구, 공항 등 인프라를 완공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실현했음을 과시할 수 있다. 또한 트란스자바 고속도로 외에도 내년에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도시철도(MRT)도 완

공될 예정이다. 중부자바는 투쟁민주당(PDIP) 지지가 강한 지역이고, 동부자바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나똘 올라마(NU)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NU의 지도자인 마룹 아민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이 지역의 지지를 공고하는 내년 대선 전략을 세웠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美 셀렉트, AI 리테일 솔루션 제공

-인벤토리 관리 등 지원  
-1500만弗 투자금 유치



미국의 리테일 분야 예측 분석 및 인벤토리 관리 솔루션 제공 벤처 기업인 셀렉트(Celect)가 최근 15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마쳤다. 기업의 시리즈 C 펀딩은 NGP 캐피탈과 기존 투자자인 평 캐피탈이 이끌었다. 평 캐피탈은 홍콩 평 그룹의 투자 기업이다. 셀렉트는 펀딩을 통해 리테일 시장에서 기업의 솔루션 제공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액티비트 캐피탈과 어거스트 캐피탈 등이 이번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다. NGP의 파트너 우팔 바수는 “리테일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가 소비자 행동,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머신 러닝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이 문제가 이제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나날이 변화하는 니즈를 셀렉트의 분석 플랫폼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셀렉트에 의하면 기업의 기술로 리테일러와 브랜드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구매 패턴과 행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수익성 높은 머천다이징, 물량 분급, 재고 관리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캐나다 ALDO 그

룹, 미국 데님 기업 럭키 브랜드, 백화점 체인 니만 마커스, 폴로, 어반 아웃피터스 등에 성공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매출과 마진을 높이고 할인 판매를 줄이며, 정가 판매를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체험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거뒀다고 한다. 셀렉트는 2013년 MIT에서 개발된 머신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다. 2017년 2월 시리즈 B 펀딩으로 1000만 달러 투자금을, 2015년 6월 시리즈 A 라운드로 520만 달러를 유치했다. <국제성유신문>

대한민국 No.1 보일러

#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o,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o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 保力那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 <올해의 트렌드> 올해 패션 트렌드는 친환경 넘어 '必환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김난도 교수팀이 발표한 트렌드코리아 2019에서 발간한 올해의 '2019 10대 소비트렌드' 인 '컨셉 연출' '세포마켓' '뉴트로' 만큼이나 중요한 키워드로 손꼽히는 것이 '필(必)환경'이다.

그동안 환경친화적 제품이 단순히 '하면 좋은 것' 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必) 해야하는 것이 됐다.

이제는 선택을 넘어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업계 전반적인 트렌드도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패션 업계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고어사, 환경 악영향 과불화화합물 사용 배제 발수 및 리사이클 생산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소비하는 사람들을 '에코 슈머(자연을 뜻하는 Ecology와 소비자를 일컫는 Consumer의 합성어)'라고 한다. 이 같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제작과정부터 버려지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고어사(W.L Gore & Associates)는 그동안 얼룩이나 기름에 탁월해 아웃도어 의류에 널리 사용했던 PFCEC(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발수 처리 소재를 최근 출시했다고 알리고 있다.

아웃도어 소재 중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고어텍스의 세계화의 이면에는 그동안 과불화화합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이었다는 인식을 배제할 수 없던 만큼 올해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사용을 앞장서 자제하는 모습이다.

고어사는 뛰어난 기능성과 내구성을 통해 각 활동에 맞는 최적화된 기능성 소재를 완성했다고 알렸다.

국내 아웃도어 기업들도 앞다퉀 친환경 발수소재를 사용

하고 있다.

코오롱 스포츠의 '안타티카' 제품은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지닌 PFCEC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수 처리된 방풍·투습의 고어 윈드스타퍼(GORE? WIND-STOPPER?) 소재가 적용됐

다.

K2의 '고스트' 제품과 블랙야크의 'BN 옛지다운자켓' 제품도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PFCEC 제거 및 내구성 발수 처리된 고어텍스 소재가 적용됐다. 이와함께 고어사는 최근 리사이클 트렌드에 걸맞게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나일론'과 PET 병을 재생하여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도 생산에 성공하면서 재활용 소재 개발 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리사이클 걸감 소재가 적용된 고어 윈드스타퍼(GORE? WINDSTOPPER?) 제품으로는 블랙야크의 'B 모션벤치다운자켓'이 있다. 이 제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킴은 물론, 뛰어난 방풍·투습의 기능성과 견고한 내구성을 제공해 소비자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친화적 재킷이다.

국제섬유신문

### 조코위 대통령

#### "매년 65조 루피아 교통 비용 발생"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혼잡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8일 각료회의를 열고 수도 자카르타 지역의 교통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당국자들에게 명령했다. 당국은 교통체증이 연간 65조 루피아, 즉 4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공사업국 민주택부, 자카르타 행정부, 반딧주 행정부, 서부 자바주 행정부 등 많은 부문이 도로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도로 관리의 대부분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보데파벡(Jabodetabek)의 대중교통을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리는 행동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며,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성명서에서 "교통 서비스의 통합이 확대됨에 따라 도로 위의 차량을 실제로 대규모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 印尼, EFTA와 무역협정 체결

#### -스위스 등 유럽 4개국 -섬유류 포함 수출 혜택

인도네시아가 유럽 4개 국가와 무역 협정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 협정을 최근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EFTA 국가들에 섬유류를 포함, 커피, 팜 오일, 가구 등을

수출하는 데 있어 혜택 등을 받게 될 계획이다. EFTA에는 현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가입돼있다.

이번 CEPA 체결을 위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상을 해왔다고 한다.

EFTA에 의하면 2017년 인도네시아와 EFTA 간 무역은 23억(미국) 달러 규모에 달했다.

국제섬유신문

**AUTO SPREADER MACHINE**  
All Digitalized Z Series  
**Z-320**  
SE MYEONG PRECISION CO., LTD.  
www.semyeong.co.kr

- 세명정밀 자동 연단기**
- 유일한 디지털 방식의 자동 연단기
  - 레이온, 스판 100g 당중량 100그램 짜 얇은 원단도 연단이 가능한 유일한 연단기
  - 디지털 방식으로 우븐, 니트, 스판 원단 무장력도 로자동연단
  - 봉제, 가방, 신발, 자동차시트, 공장 설치사용

**SHRINKING AND FORMING MACHINE**  
All Digitalized Z Series  
**Z-240**  
SE MYEONG PRECISION CO., LTD.  
www.semyeong.co.kr

- 세명정밀 원단 수축율 교정기계**
- 스판, 레이온 원단 롤, 절 별 LOT차에 의한 일정하지 않은 수축을 개선하여 재단 봉제시 일관성 보장
  - 디지털 방식으로 바이어, 스타일, 원단 LOT 수축율 자동 입력시스템
  - 온도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됨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5K,10K,20K
  - 성과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쁜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품질 보장

**PERFECT BOILER**

-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중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킴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템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P.T PERDANA ABADI SUKSES**

세명정밀 (SEMYEONG PRECISION) INDONESIA SOLE AGENT  
퍼펙트보일러 (WINNER TEK KOREA) INDONESIA SOLE AGENT  
JL. BOULEVARD BARAT RAYA RUKO INKOPAL F53 TEL : 021 4585 9110  
설치상담 및 a/s : 085 882 701 823 lee jong chan

EMAIL : gildong27@gmail.com

##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회칙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이하 협회) 라 칭한다. 단,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KOGA 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사간 기업운영 관련 각종 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완
2. 전 회원사의 공동이익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대내외 활동
3. 회원사간 친선 도모
4. 기타 협회가 따로 정하는 사항

### 제 2 장 협회의 구성

#### 제 3 조 (회원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PMA) 및 내국인 투자법인(PMDN)인 의류, 가방, 장갑 등 봉제산업 및 그의 유관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포함) 은 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다.

#### 제 4 조 (회장단)

##### 1. 회장

가. 협회 회장은 회장단 임원 및 상임위원사 대표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협회 총회에서 출석 회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1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총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회장 취임 시 집행부 정기회의에서 협의하여 3 년간 회장직 연임을 전제로 부회장 또는 상임위원 중에서 차기 회장을 내정할 수 있다.

##### 2. 부회장

가. 회장은 최저임금제 시행 주요 지역별로 지역 부회장 각 1 인을 임명한다.

나. 회장은 지역 부회장 외에 재무담당 부회장 및 대외협력 부회장 각 1 인을 임명한다.

다. 부회장의 임기는 1 년이며 회장의 연임에 따라 자동 연 임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가. 회장은 협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1 인을 임명 한다.

나. 회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실무를 보좌하는 사무차장 1 인 이상을 임명한다.

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임기는 1 년이며 회장의 연임에 따라 자동 연임됨을 원칙으로한다.

단, 집행부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직 승계자를 내정 시 차기 회장직 승계자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후임자도 더불어 내정할 수 있다.

라. 회장의 결정 또는 집행부의 의결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상근직 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마. 상근직 임원 위촉으로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총당은 집행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사무국장 (상근직원)

가. 회장은 상근직원 1 인 이상을 채용하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실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나. 상근직원 위촉으로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총당은 집행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 조 (상임위원사)

1. 인도네시아에 해외투자법인 또는 본사를 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사는 상임위원사로 위촉되어 협회의 공동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내외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사의 대표자(사장,법인장 등) 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단, 대표자의 참석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차상위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대표자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상임위원사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인도네시아 법인 매출액 상위 30 위권 이내의 회원사 (전체 계열사 및 관계사 통합)

나. 인도네시아 고용직원 2,000명 이상 회원사 (전체 계열사 및 관계사 통합)

다. 협회에 기여한 공이 큰 회사로 회장단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는 회원사

4. 상임위원사는 각 지역 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 조 (자문위원)

1. 협회는 대정부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또는 재계 관계자 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위촉으로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총당은 집행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장 회원사의 자격 및 권리

#### 제 7 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사는 매년 3 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사의 자격을 연속 유지할 수 있다.

2. 협회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사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회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협회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활동에 명백히 비협조적인 회원사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회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사는 협회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이메일 및 SNS 등 매체를 통하여 제공받고 매월 발행하는 KOGA 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세미나, 간담회 또는 발표회 등의 일정을 공유하고 사전 참가신청을 전제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사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조사 (혼인 및 사망) 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전회원사에 공지할 수 있으며, 협회 명의로 경조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단, 회장단에서 심의하여 협회에 기여도가 큰 회원사에 대하여는 임직원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4. 회원사는 협회 단합대회 (KOGA OPEN GOLF 대회) 행사에 사전 참가신청을 전제로 무료로 참여 할 권리가 있다.

### 제 4 장 회의

#### 제 9 조 (총회)

1. 협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12 월) 중 집행부 정기회의에서 결정한 일정으로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결정으로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협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다. 협회 사업승인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전회원사의 공동이익 구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사항

4. 총회의 제반 의제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안은 회원사 3 개사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 제 10 조 (세미나 및 간담회)

1. 집행부는 전 회원사의 권익증진 또는 정보교류를 위하여 최소 연 1 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2. 연 1 회 세미나는 정기총회의 일정에 맞추어 3 월 또는 4 월에 진행할 수 있다.

3.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겸한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4. 집행부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코트라, 한인상공회의소 (KOCHAM) 등 한국 관계기관 또는 APINDO, API, KADIN 관세청, 국세청, 노동부등 인도네시아 관계기관에서 주관 하는 각종세미나 또는 간담회를 전회원사에 빠짐없이 공지 하고 참여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

#### 제 11 조 (회의)

1. 회의는 회장단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그리고 상임위원사를 포함한 집행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회장단 정기회의는 각 분기별 중 일시를 정하여 개최한다.

3. 집행부 정기회의는 회장단 정기회의와 겸하여 연 1 회 개최한다.

4. 회장단 임시회의 또는 집행부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중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상임위원사는 회의소집시 대표자 (사장, 법인장) 또는 대표자가 선임한 차상위자 또는 관리 책임자 1 인 이상이 회의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다.

#### 제 12 조 (협회 단합대회)

1. 협회는 매년 하반기 중 단합대회의 일환으로 회원사는 물론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KOGA OPEN GOLF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매월 지역별 부회장을 통해서 지역 골프를 개최할 수 있다.

3. 단합대회의 제반 비용은 협회 재정 및 대화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부 칙

#### 제 1 조 (세칙)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단이 정할 수 있다

#### 제 2 조 (회비 및 찬조금)

1. 회원사 연회비 : 삼백오십만 루피아

2. 회장의 연회비는 일천만 루피아로 정하되 협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소정의 발전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3. 부회장의 연회비는 일천만 루피아로 정하되 매년 집행부 정기회의 시 결정에 따르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4. 상임위원사의 연회비는 이천만 루피아로 정하되 매년 집행부 정기회의 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소정의 발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 2018년 12월 총회

## KITAS / KITAP / IMTA SILVER VISA (DI ATAS 55 TAHUN)

저희 오롬 컨설팅은 KOGA회원업체 전문 비자 키타스 수속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한국대사관 및 인니 노동청 옆건물에 위치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20년의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 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Staff Orom 2018

노동청 Surveyor 대사관  
Gedung Surveyor Indonesia Mezzanine - PT. OROM 19th Floor - PT. Doowang

PT. OROM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Phone : 021-4585 4910 / 4911 / 4207 / 6898 | Email: visa.orom@gmail.com | Website : oromvisa.com  
Contact Person : Suhada (0812-9759-8638), Nita (0811-168-1462)  
Orang Korea : indocity1991@gmail.com | : indocity1991 | (핸드폰) 0812 1922 1462



애슬레저 열기가 한참인 미국에서 최근 새로운 스타일이 관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美 패션 화두는 ‘스마트 캐주얼’

### 2018년 최다 검색어 캐주얼+포멀의 만남



개개인의 검색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검색된 스타일이 ‘스마트 캐주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개 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로 떠올랐다. 서부에서는 스마트 캐주얼이 비교적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캐주얼이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데님 바지와 펌프 구두, 스트럭처드 재킷을 매치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남성들에게는 버튼다운 셔츠 위에 스웨터를 더하고 이를 다크 데님바지와 브라운 부츠와 매치하는 것이 한 예” 라고 크렝크 클럽의 리

슬리 바렐라는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스타일은 프로페셔널 스타일과 트렌디 스타일로 각 7개의 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다. 그 다음으로 보헤미안 스타일과 빈티지 스타일이 각 4개 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다. ‘레깅스 입는 법’은 텔라웨어, 하와이, 아이다호, 메인, 뉴햄프셔, 뉴멕시코에서 특히 많이 검색되며, 애슬레저 트렌드에 대한 이 지역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국제섬유신문

었다. 퍼스널 스타일링 서비스 기업 트렁크 클럽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패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검색어로 ‘스마트 캐주얼(Smart Casual)’을 지목했다. 캐주얼과 격식 있는 포멀함을 섞어 놓은 스타일을 이르는 트렌드다. 트렁크 클럽은 인터넷 서치 엔진을 통한 400여 검색어 혹은 검색 질의를 분석해 조사

를 실시했다. 블랙 데님바지와 무슨 옷을 매치시켜 입을지, 스카프를 어떻게 입을지 등 패션 관련 구체적인 검색 질의를 이른다. 또한 프로페셔널 룩, 애슬레틱 룩, 시크 룩 등과 같은 200여 일반적인 스타일 질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동안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장 많이 서치된 검색어 또한 검색 질문을 통계 낸 것에 기반한 것이다.

### 합성섬유협회, 레이온 섬유 연산 능력 39% 확대 전망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합성섬유협회(APSyFI)는 올해 레이온 섬유의 국내 연산 능력이 2018년 대비 39% 증가한 97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국내 레이온 공장의 총

연간 생산 능력은 101만톤으로 가동률은 55% 정도다. APSyFI의 레도마 사무 총장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계 레이온 섬유 제조사인 아시아 퍼시픽 레이온(Asia Pacific Rayon, 이하 APR)의 신공장이 가동한다. 공장이 배출하



는 가스의 악취 문제로 가동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현지 기업 레이온 우파마 막무르(PT Rayon Utama Makmur, 이하 RUM)도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다.

#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괄대리점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서)**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서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서)**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인버터형 드라이어)**  
에프터 콜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서)**  
스크류 : 독일(GHH-RANDSA)  
세퍼레이터 : 일본



**AL, 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서)**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도네시아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13)

인도네시아속의 내면적 이슬람문화의 뿌리를 들여다 본다 이슬람문화 연재<1>

- 인도네시아 투자 이슬람문화를 통해 성공 할 수있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국가 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종 교에 입교한 무슬림의 수는 전체 인구 2억 6천만명의 87%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이슬람신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신도 나라들 중 최고의 이슬람대국 27개국의 중동 무슬림신도를 다 합한것보다 많은 전세계 이슬람의 대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가는 나라, 할랄 대국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이슬람국가는 아니지만 전체 인구 87%의 무슬림 숫자가 있는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또한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속의 다양성속의 통일국가, 6대종교(힌두,불교,이슬람교,천주교,기독교,유교)를 공식 인정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신도가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의 마케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 바로 이곳에 비즈니스의 흑진주 보석이 있다 보면 된다.

이미 중국계 화교들과 인도 상인들의 경우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를 통해 적지않은 경제적 부의 비즈니스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중국계 화교의 경우 인도네시아 경제 중심에 자리 매김하면서 약70%의 경제부분을 이들 중국계 화교상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중국계 화교들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들 정착 역사 100년 이상을 훌쩍 넘어 로컬 인도네시아 경제인과 더불어 다수의 정치인들 마저 배출하게 되면서, 향후인도네시아 정계에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와 같이 중국계 화교 정치인들이 인도네시아 각 부서별 적지않게 포진되고 있다.

이슬람국가가 제일 많은 비즈니스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우회 수출비즈니스 기회 의 장, 세계 15억인구의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을 겨냥한 잠재력 있는 비즈니스시장의 하랄팟(허용된 음식) 시장 비중은 전체 유동자금 6300억불의 약 740조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잠재력있는 이슬람 시장중의 하나가 바로 무슬림시장의 포커스이다.

주요포인트:

동남 아시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하랄팟에 대한 인증 허가 제도가 시작됐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부 UMKM 건물에서 인도네시아 새로운 패러

다임의 하랄팟 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정착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원로회의(MUI)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하랄팟에



대한 인증제도가 특별 부서위원회를 통해 MUI 산하보고르에서 그에 대한 관련 식료품등 각 해당분야에 대한 하랄인증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한다는데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는 종교부 산하 특별할랄청 즉 장관급으로 격상 인니 할랄 수입 루트 인허가 절차인증절차, 검사대행에 이르기까지 할랄심사등을 마치 ISO 국제인증화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 하고 있다.

그와같은 흑진주와 같은 중동의 오일머니와 함께 이슬람문화를 보다 깊이있게 꿰뚫어 보자면,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이슬람시장의 새로운 뉴패러다임의 비즈니스가 보이고있다 할 수있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대부분의 국 내외투자기업 전 세계 다국적 투자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무슬림시장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하고있는가? 하면 일부업체의 경우에는 이슬람의 무슬림신도와 전혀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깊이있게 공부하고 숙지하기 위하여 이슬람 종교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우고 인문학 관심에 이슬람문화에 대한 관심이 기업은 물론 교민 개개인도 아주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의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들의 주인 의장국이기 에 더욱 관심을 표명하고있는 가운데, 이슬람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수가 많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문화를 통해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다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있고, 특히 우리정부가 중국의 투자지난 사드문제로 인

해 중국의 요커들이 우리 한국방문을 자제하면서, 그 대안의 한국관광의길! 방문관광객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커의 대

안 동남아의 이슬람 무슬림 관광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에서 그 절반을 대체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들 이슬람국가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반응도 매우 달라졌다. 이제 중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자체내의 무슬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위해서는 인도네시아속의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있는 이슬람문화를 깊이있게 숙지 하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중,장기적인 플랜하의 비즈니스, 신 남방정책의 우리 정부의 방향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빨리 변화 적응할 때 이라고 본다.

한국의 대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들 모두는 이슬람을 알아야 인도네시아의 깊은있는 문화를 알고 인도네시아 사업공략의 비즈니스에 대한 유익한정보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미 이슬람문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의 경우 역사적으로는 화란이 인도네시아를 약 340년 동안 지배해 오는 동안 인도네시아내의 경제적인 향료무역을 통한 경제적 착취에도 오히려 이슬람문화의 경우 도덕과 관용으로 배려하고, 이슬람종교를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종교적인 예민한 분야에 있어서는 마음 속 깊이 스며져있는 종교적 숨결 (이슬람속의 이슬람/Acculturation,Innovation)마저도 전혀 타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화란이 인도네시아를 오랜 식민지국

가로서 손에 넣었던 하나의 장점 이라면 장점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역사적인 내면적 심층에는 반드시 종교라는 씨앗이 배태되어 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저변에는 유,불,선 3교를 비롯하여 인도의 힌두사상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등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세계 종교의 사상적 뿌리를 내려 왔다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종족, 다언어, 다문화(종교)를 지니고 있는 "다양성속의 통일국가" 로의 인도네시아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있는 분야가 바로 일반 사회적갈등으로 자주 발생하고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속의 속편이라 할 수있는 종교, 종족, 특정계층적 갈등 (SARA)이라고 볼 수있다.

기업투자포커스 :

인도네시아 다국적 외국계 투자기업인 맥도널드의 경우 지난 97년 5.14 소요사태에서 제일 위험 공격타킷 1 순위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계 투자기업 활동에 있어서 현지 문화적응 문화에 대한 포용과 화합 (har-

mony)융합의 일치가 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성공비결에 절대적으로 필요 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가 되어버렸다. 지난 우리기업들이 중국 초기진출 문화의융성, 화합, 융합등의 절대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최근 몇년 사이 연이어 백업하고있고, 심지어는 대기업인 삼성, 롯데등의 기업도 중국에서 손을 들고 국내 또는 해외 다른나라의 아세안국가등의 투자를 기하고있는 모습이 보이고있다.

이슬람문화의 대명사 할 수있는 비즈니스의 하랄, 하랄팟의 대한 규정이 국회로부터 최근 국회부터 신규법안의 승인을 받은 이후로 전세계 어느나라이던 인도네시아에 수출수입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하랄 인증규정이 아주 강화되고 엄격해 질 것으로보고 있다.

그에 대비 관련유통기업의 경우 하랄팟에 대한 사전 철저한준비와 검증기관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할것으로 보이고, 그외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식료품 업체들은서둘러서 사전 할랄 규정방침에 따른 수출변화에 대비하는것도 우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슬람문화 종교문화를 떠나서 미리 공부도 하고 이슬람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을 익히게되므로써, 인도네시아 역사문화의 인문사회를 알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성격이나 문화적 관습 그리고 종교문화를 통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오늘부터라도 이슬람문화를 공부 시작하는 기업이 바람직한



기업이고 종교를 떠나 배타적인 성향보다는 우선 폭넓게 내자신이 먼저 손 내밀고 포용적인 방안을 선택 단기적인 기대안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공전략을 보고, 인도네시아 투자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의 전통유산이라 할 수있는 이슬람문화 교육을 공부하는것도 이 문화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화합에 대한 성공적인 비즈니스전략의 하모니가? 아닌가 싶다.

학력

- WU 자카르타대학 졸업
- U 대학 대학원 인류학 석사졸업
- PTK 경찰 대학원 2년과정 수료
- UN 국립 이슬람 대학교 박사 졸업

경력

- 현 국회 보좌관 / 현 UNUA 대학교수
- 상공회의소 대외협력 국장
- 봉제협의회 대외협력 부회장
- 교육, 문화, 전문 강의 전도사
- 인적자원 네트워크 컨설팅



알리, 안선근

# 땅그랑 반튼 한인회 반튼주 쓰나미 재해 구호기금 전달해

## -자발적인 기금 성금으로 온정의 손길 내밀어



지난 11일 땅그랑반튼 한인회(회장:채만용)는 지난해 갑자기 급습한 반튼주 쓰나미로 수 백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구호기금 모금운동을 벌여 구호기금 327,719,500 루피아와 방수시트, 신발, 매트리스 등 많은 구호품을 반튼주 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재해지역 구호기금 모금운동은 동 지역 한인회가 발 벗고 나서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였고 한인기업은 물론 많은 한인들이 아픔을 함께 하고자 동참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 특히 같은 지역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한인동포의 한목소리를 빠르게 수렴해 진행했다.

이날 재해 구호기금 전달식에는 인도네시아 유력 일간지 사플린도와 방송사 브리파사푸등 각 언론에서 한인회의 따뜻한 온정어린 성금을 취재해 보도했다.

또한 동지역뿐만 아니라 자카르타등

타 지역 한인동포의 성금도 끊임없이 이어져 땅그랑 반튼 한인회 구호기금 모금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구호기금 모금은 땅그랑 반튼 한인회에서 직접 전달한

기금과 물품 외 포스코에서 50만불, 대한항공 제주 생수 8톤 트럭 5대 분량 등 많은 한인기업에서 자발적인 성금을 해 훈훈하고 따뜻한 한인사회의 정서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의 이번 성금지원은 한 걸음 더 서로에게 다가가는 의미에서 양국간 정서적인 간격을 좁히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제100주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100주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 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은 한국인 및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학생부(초,중,고)와 일반부(대학생 이상)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응모작품은 2019. 1. 14 ~ 2. 14 18:00 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참신성과 주제부합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5명씩을 선발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상과 한국문화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응모작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및 한국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부내용
  1. 주제 : 제100주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의의
  2. 작품 카테고리 : 포스터/일러스트레이션/디지털(영상)/직접 그린 그림 등
  3. 양식 : 그림파일 (jpg/png, 5MB 이하)

- 4. 방법 : 링크된 서식에 첨부 (링크주소 : <https://goo.gl/PjLmXi>)
- 5. 수량 : 최대 2개 작품 제출 가능 (단, 다른 카테고리에 한함)

- 응모 부문
  1. 학생부 (초,중,고)
  2. 일반부 (대학생 이상)
- 세부일정
  - 작품접수 : 2019. 1. 14. ~ 2. 14. 18:00 접수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019. 2. 20.
  - 시상식 : 2019. 2. 23.
  - 전시회 : 2019. 3. ~ 4. (제100주년 기념 행사관련 전시장 등)
- 기타
  - 학생부 상금 (금상 1명 Rp 4백만 / 은상 1명 Rp 3백만 / 동상 1명 Rp 2백만 / 장려상 2명 각각 Rp 1백만)
  - 일반부 상금 (금상 1명 Rp 5백만 / 은상 1명 Rp 4백만 / 동상 1명 Rp 3백만 / 장려상 2명 각각 Rp 1백만)
- 문의 사항
  - 사무실 : 021-2903 5650
  - 페이스북 메시지 : @KCCIIndonesia
  - 홈페이지 : id.korean-culture.org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http://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 Kendal / Park By The Bay

중부자바내 스마트 전략적 위치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sup>2</sup>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mailto: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VSIP BAC NINH 2007**  
Area : 700ha(500ha IP and 200ha C&R)  
Total 54 projects

**VSIP HAI PHONG 2010**  
Area : 1600ha (500ha IP and 1100ha C&R)  
Total 32 projects

**VSIP NGHE AN 2005**  
Area : 750ha  
Phase 1: 279ha (198ha IP and 81ha C&R)

**VSIP HAI DUONG 2015**  
Area : 150ha IP  
Total 1 projects

**VSIP QUANG NGAI 2013**  
Area : 1020ha (500ha IP 520ha C&R)  
Total 09 projects

**VSIP I BINH DUONG 1996**  
Area : 500ha IP  
Total 238 projects - 100% occupied

**VSIP II BINH DUONG 2005**  
Area : 2045ha IP (1345ha IP and 700ha C&R)  
Total 206 projects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 北美정상 두번째 담판은 어디서...베트남 · 인니 등 유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가시화하면서 회담 장소로 어디가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별장인 데이비드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양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회담 장소 후보지를 놓고 직접 협상을 벌일 정도로 2차 회담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는 모양새다.

회담 장소 선정은 정상회담 준비 절차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회담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면 회담 일자를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사다.

미국과 북한은 개최 후보지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 실용성, 접근성, 홍보 효과 등을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자국에 유리할지 저울질하며 치열한 ‘밀당’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지 리스트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3곳을 검토 중이라며 “항공기 비행거리 내(within plane distance)”라고 언급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의 이동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돼 지리적으로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 국가로 낙점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 양국에 부담이 적은 정치·외교적



중립 무대’가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도 지난 3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을 아시아 국가

였다.

북한이 베트남에 자국 대사관을 두고 있고 비행 거리상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이점으로 평가된다.

장 역할을 해온 인도네시아는 정치·외교적 중립국이라는 조건에 맞는다.

오래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하려는 의지

면서 회담 개최지 제공 의지를 밝혀왔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게 큰 이점으로 꼽힌다. 북한에서 몽골까지는 중국을 경유해 기차·차량 등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남북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한다는 취지에 부합할뿐더러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호 부담도 적다.

다만, 판문점이 비핵화 이해 당사국에 속하는데다 장소의 상징성 때문에 미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은 1차 정상회담 때도 유력 개최지로 거론되다가 막판에 배제됐었다.

작년 6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대면한 싱가포르의 이번 2차 정상회담 후보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개최된다면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이 잠재적 후보군에 속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개최지로 낙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스위스의 경우 김 위원장이 어릴 적 유학 생활을 한 곳으로 현지 사정에 밝다는 점을 고려해 백악관이 북한측에 회담 장소로 제안했으나 이동·수송 등의 문제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년 북미정상회담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 비행거리 내 정치적 의미 · 접근성 감안... 몽골 · 판문점 등도 거론 트럼프, 지난달 “비행거리내” 언급 주목...유럽선 스웨덴 물망

에서 여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관들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국 하와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회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로 꼽힌다.

CNN에 따르면 베트남 고위당국자들은 작년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비슷한 시점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베트남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길 희망하는 북한이 베트남식 ‘도이머이’(개혁·개방 모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고려 요소다.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이 과거 적대국이었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서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이벤트’ 장소로 고려할 만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몽골도 후보지 물망에 오르내린다. 과거부터 비동맹 국가의 수

를 보여온 인도네시아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미국이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9년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미 3자 회담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미 외교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문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자카르타를 택한 이유와 관련, “자카르타는 3자의 공식 외교 대표부를 모두 두고 있어 3자 대화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역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자임하

**kakaoVX**  
**tee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